

2010년 가을 학기
전 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3

복음서에서
(3)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위가 있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안식, 씨를 뿌리시는 분

성경: 마 9:20-22, 36, 11:28-30, 13:3, 18-23

I.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위—그분의 옷술—가 있는 분으로 계시되신다—
마 9:20-22.

- A. 그리스도의 겉옷은 그분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고, 옷술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상징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민 15:38-40.
 - 1. 끈은 묶는 것을 상징하고,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상징한다.
 - 2. 그러므로 청색 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아름다워야 하고 하늘에 속한 통치와 제한과 규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 B. 겉옷은 사람의 행동에 있는 미덕을 상징한다. 주님의 겉옷은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온전한 행동, 그분의 인간 미덕이 있는 온전함을 상징한다.
- C. 주 예수님의 인간 미덕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병든 여인이 그분의 옷술을 만졌을 때 그분의 미덕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 그 여인은 낫게 되었다.
- D.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나온 미덕이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마 14:36.
- E.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체험되신(골 2:9) 인성 안의 그분을 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만짐으로 그분의 인성의 온전함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그분을 만진 사람 안으로 옮겨부어져 치료가 되었다(눅 8:45-48, 히 12:2 상).
- F. 가까이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구원과 누림을 위해 그분의 인성을 통해 노예-구주 안에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다—고후 4:13.
- G. 에워싸 미는 무리는 노예-구주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을 만진 사람은 받았다(*영한 동변 찬송가* 559 장 2 절과 후렴).

II.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마 9:36, 사 40:11, 53:6, 겔 34:1-5, 11-15.

- A.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이신 그리스도와 설만한 물가이신 그 영을 누리는 초기 단계에서 목양하신다—시 23:1-2, 딤후 1:4, 빌 1:19 하, 요 21:15, 살전 2:7, 고전 12:13 하.
- B.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에 있는 소생과 변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 목양하신다—시 23:3, 롬 12:2, 요 7:38, 롬 8:4.
- C.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는 동안 공기 같은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세 번째 단계에서 목양하신다—시 23:4, 딤후 4:22, 고후 12:7-10.
- D. 그분은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고 더 높은 누림의 네 번째 단계에서 목양하신다—시 23:5.
 - 1. 주님은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5 상, 비교 삼하 4:4, 9:7, 13, 창 14:18-20, 느 4:17.

2.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의 잔이 넘친다—시 23:5 하, 히 1:9, 고전 10:16 상, 21.
 3. 시편 23 편 5 절에는 삼일 하나님—잔치이신 아들, 붓는 기름이신 그 영,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이 있다.
- E. 그분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서 신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누리는 다섯째 단계에서 목양하신다—6 절.
1.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 아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이고 우리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6 절.
 - a. '선하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고, '인자하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며, '따르다'는 그 영의 교통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영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한다—고후 13:14.
 -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누림은 우리가 평생(현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에서) 하나님의 집(그리스도와 교회와 새 예루살렘—요 1:14, 2:21, 딤후 3:15-16, 엡 2:22, 계 21:2-3, 22)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이끈다.
 2. 우리는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한다—시 27:4-8.
 - a. 하나님의 아름다움(사랑스러움, 유쾌함, 기쁨)을 주목함—4 상, 8, 고후 3:18.
 - b.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쭙어봄—시 27:4 하, 비교 수 9:14.
 - c. 주님의 초막 속에 숨겨지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 자신을 감춤—시 27:5 상, 31:20.
 - d.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심—27:5 하-6 상.
 - e.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제물을 드림—6 하, 히 13:15, 빌 2:11.

III. 주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시다—마 11:28-30.

- A.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28 절.
1. 여기에서 언급된 수고는 율법의 계명과 종교적인 규정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수고를 가리킬 뿐 아니라,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분투하는 수고를 가리킨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2.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B.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29-30 절.
1.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일에 규제되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제한받는 것이다.
 2. 주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다만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셨다(요 4:34, 5:30, 6:38).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셨다(마 26:39, 42). 그러므로 그분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3.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은 외적으로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인 하나님의 뜻을 멍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복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멍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복사판이 되도록 우리의 목을 이 멍에 안으로 넣어야 한다—벧전 2:21.
 4.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 우리가 얻는 안식은 우리의 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안식이다.
 5.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런 멍에는 편하고('어렵고, 엄하고, 날카롭고, 괴롭고'에 대조되는 '좋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유쾌하고'),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

IV. 씨를 뿌리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인격이고, 뿌려진 씨도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님 자신이다—마 13:3, 18-23.

- A. 우리는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인간 존재들 안으로 뿌리시는, 씨를 뿌리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상은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주님의 회복의 심장이다.
- B.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요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합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갈망하신다.
- C.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작지, 농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귀한 재료들이 산출되게 한다—고전 3:9, 12 상.
- D. 성경에 의하면 성장은 건축과 같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신성한 씨의 성장에 의해 이뤄진다—요일 3:9, 골 2:19, 엡 4:15-16.
- E. 에베소서 3 장 17 절은 삼일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그리고 재료인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 건축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안으로 오신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3 장에 있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설명된다.
 - 1. 주님은 토양인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셔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어 그들 속에서부터 표현되게 하신다—3 절.
 - 2. 씨는 토양속에 뿌려져 토양의 자양분으로 자라난다. 그 결과 소산물은 씨와 토양 모두에서 나온 요소로 된 구성물이다—23 절.
 - 3.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자라시도록 준비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자양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간적인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벧전 3:4.
 - 4.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비율은 신성한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씨에 자양분을 얼마나 공급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자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씨는 더 빨리 자랄 것이고 더 무성할 것이다—마 5:3, 8.
 - 5.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인 우리의 혼 안에 머문다면 신성한 씨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전혀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고 우리의 영을 주의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자양분이 공급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엡 3:16-17, 롬 8:6, 딤후 4:7, 비교 유 19.
 - 6. 우리 속에서 자라는 생명의 씨이신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누림이 되시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다루시도록 그분과 동역해야 한다—마 13:3-9, 18-23.
 - 7.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공급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 즉 그분의 집의 건축을 수행하신다.